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 ‘**목메어**/***목매어** 울다’라고 했을 때 ‘**목메어**’라고 써야 할지, ‘**목매어**’라고 써야 할지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목메어(매어)**’와 ‘**목매어(매여)**’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도 알려 주세요.

(양진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답 >> ‘기쁨이나 설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쳐 솟아올라 그 기운이 목에 영기어 막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목매다**’를 씁니다. 만일 ‘**목매다(≡목매달다)**’를 쓰게 되면 ‘죽거나 죽이려고 끈이나 줄 같은 것으로 높은 곳에 목을 걸어 매달다.’라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 (1) 가. 서로 부둥켜안고 **목메어** 울었다.
영은이는 **목뎌**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나. 요즘 스스로 **목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죄수는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흔히 ‘매다’와 ‘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다’는 주로 끈이나 줄 따위를 이용하여 풀어 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거나, 몸에 두르거나 감아 잘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반면에, ‘메다’는 어떤 대상을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을 때 쓰는 말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2) 가. 신발 끈을 **매고** 있다.
대님을 발목에 **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 ㄴ. 어깨에 배낭을 **뎌**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행군을 한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바지나 치마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은 ‘땨땨’이 아니라 ‘땨땨’으로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목메여(←목메이어)’와 ‘목메어’의 문제는 ‘목메어’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목메다’를 ‘목메이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목메이다’는 ‘목메다’의 잘못으로,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런 유의 단어들은 ‘설레다/설레이다’, ‘헤매다/헤매이다’, ‘개다/개이다’, ‘패다(파이다)/패이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예들을 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ㄱ. 내일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여(X)→설레어(O)** 잠이 오질 않는다.
설레어는(x)→**설레어**는(O)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ㄴ. 마치 꿈을 **헤매어**는(x)→**헤매어**는(O) 듯한 표정이구나.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한 시간을 **헤매었다**(x)→**헤매었다**(O).
ㄷ. 맑게 **개어**(x)→**개어**(O) 하늘을 보니 내 마음도 환해진다.
눈이 **개어**(x)→**개어**(O)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ㄹ. 깊게 **패어**(x)→**패어**(O) 웅덩이에 발이 빠졌다.
이 옷은 목 선이 너무 깊게 **패어**(x)→**패어**(O) 입기가 곤란하다.

물음 >> 평소 말을 하면서도 높임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에서 ‘-시-’는 자연스럽게지만, “부장님께서 그분을 모시십시오.”에서 ‘-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문장의 적절한 표현을 알려주시고, ‘-시-’의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답 >> ‘-(으)시’를 높이는 표현에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떤 환경에 써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으)시’는 ‘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뒤,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쓰이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냅니다.

“어서 오십시오.”의 경우 문장의 주체는 생략되어 있으나 이런 표현이 쓰이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주체는 대체로 ‘손님’ 정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십시오(오-+시-+ㅂ시오)’에서 선어말 어미 ‘-(으)시’는 문장의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 ‘-(으)ㅂ시오’는 상대방을 높이는 구실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말을 듣는 상대방과 문장의 주체가 동일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쓰지 않고, “어서 옵시오”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편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에 해당하는 ‘-(으)ㅂ시오’가 쓰였으므로 이 역시 가능한 높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문에 ‘-(으)ㅂ시오’를 쓰는 것은 예전부터 특정 계층에 속하거나 일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투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분을 모시십시오.”에서도 ‘부장님’은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자께서 ‘모시십시오(모시-+시-+ㅂ시오)’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시’라는 음절이 반복되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모시다’에는 이미 높임의 뜻이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기원적으로는 ‘모시다’의 ‘시’를 선어말 어미 ‘-(으)시’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녔던 주체 높임의 기능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모시다’가 높이는 대상은 주체이자 청자인 ‘부장님’이 아니라 객체에 해당하는 ‘그분’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인 ‘부장님’을 높이려 할

때 ‘모시십시오’와 같이 ‘-(으)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오십시오’에 대하여 ‘옵시오’가 쓰이듯이 ‘모십시오’를 쓰는 것도 가능해 보이나, [역시→삭제] ‘옵시오’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 >> 타이 남부 지역의 한 섬을 보통 ‘푸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 자막에 ‘푸깃’이라고 표기가 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 발음은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푸깃’이 맞는다면 같은 타이 어인 ‘song thaew’도 ‘송태우’로 적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순용,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답 >> 1986년 고시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경우)에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어의 파열음에는 유성, 무성의 대립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립이 있는 언어의 파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일관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외래어의 유성 파열음은 평음(ㅂ, ㄸ, ㄱ)으로, 무성 파열음은 격음(ㅍ, ㅌ, ㅋ)으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6년 제정한 일곱 언어 외의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어 표기의 혼란이 지속되어 오던 중에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1년에는 동구권 5개 언어, 1995년에는 북구권 3개 언어, 지난 2004년 말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동남아시아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0일에 마련된 동남아시아 언어 외래어 표기법의 가

장 큰 특징은 된소리 표기(ㄸ, ㅃ, ㅆ)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ㅆ, ㅆ’ 등은 일본어와 중국어 표기에 사용하여 왔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ㄸ, ㅃ, ㅆ’ 등은 외래어 표기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새 표기법에서는 우리말처럼 g(ㄱ) : k(ㄷ) : kh(ㅋ) 소리가 구분되는 ‘타이 어’와 ‘베트남 어’에 한해서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Phuket’은 ‘푸켓/푸케트’가 아니라 ‘푸꺄트’으로 적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다만 말레이인도네시아 어처럼 g(ㄱ) : k(ㄷ) 두 가지 구분만 존재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타이 어 ‘song thaew(화물차의 짐 싣는 곳을 좌석으로 개조한 대중 교통 수단의 하나)’는 ‘송태우’로 적는데, 이는 타이 어의 /s/ 계열 자음에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대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어 여러 단어들의 표기가 이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2004)》을 발간하는 한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음 >> 직장에서 부장님이 평사원인 제게 “정대영 씨, 이 과장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지 “부장님, 이 과장은 은행에 갔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직장에서의 올바른 경어법 표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정대영,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언어 예절에서는 높여 대우해야 할 상사를 그보다 더 지위가 높은 상사 앞에서는 높이지 않는 압존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압존법’이란 말하는 이보다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높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준 화법’에서는 가정이 아닌 직장 내에서 압존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식 언어 예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직장에서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평사원이) “사장님, 김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 “사장님, 김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2) (평사원이) “사장님, 이 일은 과장이 **했습니다.**”(×)
→ “사장님, 이 일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 (3) (평사원이) “과장님, 이걸 계장님에게 갖다 **줄까요?**”(×)
→ “과장님, 이걸 계장님에게 갖다 **드릴까요?**”(○)

다만 지위가 더 높은 상사 앞에서 그보다 지위가 덜 높은 상사에 대해 말할 때, 극존대를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 (4) (평사원이) “과장님, **계장님께서** 오십니다.”(×)
→ “과장님, **계장님이** 오십니다.”(○)
- (5) (평사원이) “사장님, 이 일은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 “사장님, 이 일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고, 과장이 아랫사람에게 말한다면 “**김영희 씨, 이 과장 어디 갔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를 다른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장이) **김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시’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그보다 더 낮은 지위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김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처럼 ‘-시.’를 넣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처인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직급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같은 직급의 사람이나 그 아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김 과장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 ‘-시.’를 넣지만, 그 사람 직급 이상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김 과장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시.’를 넣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직급에 관계없이 “(평사원이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김 과장님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 ‘-시.’를 넣어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화로 대화를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말하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